

## 평가 만능주의의 함정

이 정 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대학에 평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대학 평가, 학과 평가, 교수 평가, 강의 평가 등등 바야흐로 평가의 전성시대다. 대교협도 평가를 하고, 언론도 평가를 한다. 교수 채용도 교수 재임용도 모두 평가에 의한다. 학생들도 교수의 강의를 평가한다. 앞으로는 교수 연봉도 평가에 따라 차등이 생길지 모르겠다.

평가는 장·단점을 가진다. 장점은 나태한 교수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함으로써 연구와 강의를 열심히 하게 만들고, 학과와 대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일 게다. 교수 채용시 정실이나 연줄을 배제하고 좋은 사람을 제대로 뽑는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평가 방법이 좋다면 말이다. 그러나 평가에는 단점도 있다. 최근 붓물처럼 쏟아지는 각종 평가는 제도가 갖는 단점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평가 만능주의, 경쟁 제일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무엇인가? 대학 평가나 학과 평가에는 수많은 항목들이 들어 있는데, 이들의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목표’라고 하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말 잘하면 점수따는 항목이 큰 가중치를 가지는 반면, 가장 중요해야 할 교수의 연구업적은 의외로 가중치가 작다. 수많은 항목에 대해 모두 조금씩 가중치를 주다 보니 정작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제대로 안 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많은 항목에 대해 일일이 준비하고, 보고서 쓰고, 실사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학과가 준비한 평가보고서를 보니 800면이 넘는데, 교수들이 그걸 준비하느라고 호텔 방에 진을 치고 불철주야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을까? 선진국에서는 뛰어난 교수가 있는 대학이 곧 그 분야의 일류 대학이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

정하는 학과별 커트라인이 그 대학, 그 학과의 서열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많은 항목에 대해 대학과 학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교수 채용시 정실이나 연줄을 배제해보려고 수많은 항목에 대해 채점을 하여 순위를 매기는 대학이 많이 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과학적·객관적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장래성 있고 유능한 인재가 점수를 못 얻어 탈락할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아주 엄격한 채용 기준을 가지고 일일이 점수화하여 교수를 채용하고 있지만, 교수들 사이의 불신과 파벌 때문에 상식 밖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예를 수도 없이 보았다. 점수보다는 상식과 신뢰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없는 곳에 점수화는 자칫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선진국의 일류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점수화하여 교수를 채용하는 곳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어떤 사립대학에서는 총장이 앞장서서 새로운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다. 여기에 평가 항목으로 연구와 교육이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문제는 ‘봉사 및 기타’ 항목이다. 교내 보직을 가진 교수는 높은 봉사 점수를 따게 되어 있는데, 모든 보직은 총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만일 어떤 교수가 총장한테서 경고를 받거나 징계를 당하면 회복 불능이다. 연구와 강의가 최고 수준이라도 그 교수는 재임용 탈락, 승진 누락, 감봉 등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의도는 명백하다. 그것은 객관적 평가를 빙자하여 총장이 교수들을 완전히 틀어쥐겠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럴 때 평가는 독재의 편리한 수단이다.

평가와 경쟁을 앞세우면서 인화와 협력을 무시하고, 얼핏 보면 과학적·객관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도처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평가제도를 우리는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미국에서도 한 때 강조하던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부작용이 많다 하여 없애는 대학이 많다고 한다. 물론 평가도 잘만 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 잘못된 의도를 가진 평가가 범람하는 한국 대학의 현실은 우려할 만한 상태로 보인다. 상식과 신뢰가 모든 인간조직의 근본임을 우리 대학인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

---

이정우/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 『소득분배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등이 있다.